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번지
TEL. 2634-1760, 2636-2476 FAX. 2677-5839
http://www.josephclinic.org Josephclinic@hanmail.net

요셉의원

격월간 제87호 2016년 6월

발행인 : 이문주 신부 편집 : 요셉의원 편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관이 요셉의원 기에 표창 리본을 달아주고 있다. (아래사진) 대통령표창장

요셉의원, 대통령 표창 받다 봉사자 후원자 사랑의 도움으로 결실



요셉의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5월 1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 35회 세종문화상 포상식에서 요셉의원은 국제협력·봉사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단체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요셉의원은 1987년 문을 연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노숙자와 행려자, 외국인 근로자 등 가난한 환자 60여만 명을 무료로 치료해줬으며 이 밖에도 음악치료, 급식제공, 이발, 목욕, 옷나눔, 쉼터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외된 이들을 돕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6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8,000여 명의 후원자, 90여 명의 무료봉사 의료진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2013년부터는

필리핀에도 요셉의원을 세워 무료로 질병을 치료하고, 영양실조 어린이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등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수상 요지를 밝혔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전달받은 이문주 요셉의원 원장신부는 수상소감 발표를 통해 “이 상은 그 동안 저희 병원의 버팀목이 되어 준 600여 명의 봉사자와 8,000여 명의 후원자의 땀과 사랑의 결실이라 믿는다. 이 기쁨을 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세종문화상은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창조정신을 계승하고자 1982년에 제정된 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문화 융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쪽방촌 향기



소리굽쇠의 공명

김보경 / 내과전문의



요셉의원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99년 가을이었다. 당시 나는 성모병원에서 전임의를 하고 있었는데 요셉의원으로부터 주임교수님께 소화기내과 의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게 되었다. 3개월간 한 달에 2번, 저녁 7시 이후 병원을 방문해 1~2시간

진료를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처음 선우경식 원장님을 만났다. 선우경식 원장님께서 내게 전임의 과정이 끝나도 요셉의원에 와서 일해 달라고 부탁하셨다. 다음해 봉직의로 근무하던 중 선우경식 원장님 말씀이 생각나서 진료하게 됐다. 요셉의원에서 봉사하면서 만난 선우경식 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봉사자분들은 알아 갈수록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었다.

하루는 요셉의원에 갔더니 환자 여러 분이 대기하고 있고 내시경을 해야 하는 환자도 있었다. 내시경을 먼저 하고 나왔더니 선우경식 원장님 혼자서 대기환자를 다 진료하시고 마지막 남은 외국인 노동자와 유창한 영어로 대화하고 계셨다. 원장님은 미국에서 내과 전문의를 취득한 재사이셨던 것이다. 자상하고 진료도 잘 하시며 영어도 잘 하시고 실력 있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신 선우경식 원장님이 결혼 안 한 이유를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주위에서 소개팅을 몇 건 주셨는데 미국 내과전문의라고 소개해 나온 여성들이 원장님을 만나고 보니 돈 버는 일은 하지 않고 봉사만 해서 결혼이 성사될 수 없었다’고. 그 얘기를 들은 후 선우경식 원장님을 뵈는 때 마음 한구석이 아프곤 했던 기억이 난다.

개원하기 전 나는 대림동에 있는 유명 신경외과 병원에서 봉직의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병원 원장님은 신경외과 전

문의했는데 스스로에게도 엄격할 뿐 아니라 봉직의에게도 엄격하셨고 특히 여의사를 싫어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긴장하며 근무하는데 어느 회식 날 신경외과 원장님이 인자한 얼굴로 내게 다가오시더니 여러 사람 앞에서 날 칭찬하시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노숙자가 뇌수술이 필요할 때 요셉의원에 도움을 주던 협조자였는데 선우경식 원장님이나도 모르게 그분께 내 칭찬을 해주셨던 것이다. 선우경식 원장님은 그렇게 주위 사람들을 같이 봉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셨다.

선우경식 원장님을 알게 되면서 요셉의원에서 봉사하겠다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생겼다. 학생 때 배웠던 소리굽쇠 실험이 생각난다. 한 가지 진동수를 가진 소리굽쇠를 치면 같은 진동수의 소리굽쇠가 공명한다. 그 때 여러 진동수를 가진 현악기 등 다른 악기도 그 진동수에 반응해 같이 공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선우경식 원장님이 돌아가시자 성모병원에서 존경받는 교수님이셨던 신완식 교수님이 교수직을 버리고 요셉의원 의무원장직을 맡으셨다. 선우경식 원장님의 순수하고 선한 삶은 또한 많은 사람의 마음에 봉사에 대한 소명을 일깨워 주시고 공명하게 하셔서 여러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봉사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봉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선우경식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보경 원장은 1999년부터 요셉의원에서 의료봉사를 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보따스 지역에 큰 화재 발생 필리핀요셉의원, 즉시 지원활동 나서



필리핀요셉의원이 있는 곳은 워낙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의 삶이 몹시 열악한 상태다. 그런 곳에 4월 20일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필리핀요셉의원 인근 나보따스에서 480가구가 불에 타고 2,000여 명이 집을 잃은 채 인근 고등학교로 몸을 피했다.

필리핀요셉의원은 이 지역을 관할하는 갈루간 교구장의 요청을 받은 뒤 즉시 이재민들을 돕기로 하고 현지로 달려가 소아과 내과 환자 400여 명을 진료하고 약을 나누어 주는 등 빠른 지원활동을 펼쳤다.

한편 작년 1월 11일 건강악화로 귀국해 급성폐렴과 백혈암 치료를 받은 최영식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는 건강을 회복해 5월 18일 요셉의원을 찾아 와 이문주 원장신부와 함께 미사를 봉헌했다. 이에 앞서 최영식 신부는 5월 2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노래의 날개 위에' 공연에도 참석해 건강회복을 위해 기도해 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바 있다.

필리핀요셉의원에서는 4월과 5월 두 달 동안 환자 1,336명을 치료하고 어린이 9,967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했다.

※ 필리핀요셉의원 4~5월 신규 후원자 김성영, 김용민, 김유진, 김중수, 노수장, 노희숙, 박영희, 박혜린, 안승태, 우연호, 유한구, 이연희

병원 동정

고 선우경식 원장 8주기 추모미사 요셉의원, 울대리 묘소 참배



고 선우경식 원장의 8주기를 이틀 앞둔 4월 16일, 요셉의원에서는 이문주 원장신부와 신혜영 원목수녀, 울프레야 멤버 5명 등 총 12명이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있는 고인의 묘소를 찾아 추모미사를 봉헌하고 연도를 바치며 고인의 위업을 기렸다. 한편 귀로에는 요셉의원에서 함께 생활해 온 고 안근수 형제의 납골묘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직원과 봉사자, 서오릉 나들이 심신단련과 친목도모 위해

5월 21일, 요셉의원 직원과 봉사자 19명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서오릉을 다녀왔다. 서오릉을 비롯한 조선왕릉은 2009년 6월 3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적이다. 요셉의원 직원과 봉사자는 이은희 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명릉(숙종, 인현왕후 안장), 익릉(인경왕후 안장)과 대빈묘(장희빈 묘) 등을 둘러보고 선조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아울러 심신 단련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고려대학교 로타랙트

13년 동안 요셉의원에서 봉사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로타랙트 활동부장 서정민입니다. 고려대학교 로타랙트는 1989년 창립됐고, 3650 국제 로타리클럽의 후원을 받으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로타랙트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20~30명씩 총 약 300명의 봉사자가 정기적으로 요셉의원에 와서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성북구 안암동에서 지하철 6호선과 1호선을 타고 영등포로 오게 됩니다. 이동시간이 길어서 처음엔 많은 봉사자들이 요셉의원 방문을 주저했지만 한번 봉사를 하고 나면 하나같이 ‘오길 잘했다’ ‘뿌듯했다’라며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봉사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항상 오후 6시 반쯤 요셉의원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봉사를 시작하는데 ‘밥 먹으러 요셉의원에 온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봉사자분들이 해주시는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봉사가 끝난 후 그 주에 한 봉사 소감을 발표하며 피드백을 받고 다음 주 봉사에 대한 계획도 세웁니다. 이렇게 항상 봉사자들과 소통하며 즐겁게 봉사해서 그런지, 많은 학생들이 꾸준히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셉의원에 가면 항상 반겨주시는 신부님과 선생님 그리고 여러 봉사자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봉사란 남에

게 아낌없이 베풀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지에서 수고해야 하며 노고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의원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언제나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격려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봉사하면서 힘들었던 일도, 속상했던 일도 모두 잊고 뿌듯해집니다.

봉사를 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개인 일정이 바쁜데 요셉의원에 가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간혹 무거운 것을 옮길 때 땀을 뻘뻘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함으로써 많은 분들께 행복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또한 저희 고려대학교 로타랙트가 요셉의원에서 봉사하면서 저희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사람이 남을 위한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었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대 로타랙트 동아리는 13년 동안 요셉의원에 와서 진료 도우미, 청소, 물품운반 등 많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 수상 소감

요셉의원 원장 이문주 신부



세종문화상을 주관해 오신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님과 심사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등포 골목 어귀에 조그맣게 자리한 저희 병원을 귀히 여기시어 이렇게 큰 상을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신림동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첫 걸음을 내디딘지 어언 28년여 세월. 그동안 60만여명의 환자를 돌본 저희 병원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치유를 위하여 28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어 온 곳입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운영비가 모자라 문을 닫아야 할 만큼 절박한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고, 때로는 술취한 환자가 나타나서 집기를 부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일반병원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환경의 연속이었지만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오늘까지 힘겹게 버티어 왔습니다.

하지만 요셉의원은 설립자인 고 선우경식 원장님의 투철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낮에 본인의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험레벌떡 우리 병원을 찾아 와 밤늦게까지 환자들을 돌봐준 의료진과 수많은 봉사자의 헌신적 도움이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신문배달을 해서 모은 돈을 후원금으로 보내주는가 하면 익명으로 거금을 보내주는 등 8,000여명의 후원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태 줘 28년이라는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상은 그동안 저희 병원의 버팀목이 되어 준 600여명의 봉사자와 8,000여명의 후원자의 땀과 사랑의 결실이라 믿어 이 기쁨을 그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종문화상은 저희들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그늘에서 남이 알세라 조용히 일 해온 요셉의원에게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상은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열심히 일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봉사자와 후원자 그리고 환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5월 13일

대통령 표창 수상, 요셉의원이 걸어 온 발자취



87. 8. 29 : 요셉의원 개원 미사



96. 8. 23 : 목동의집 개설



97. 5. 1 : 요셉의원, 영등포로 이전



00. 4. 27 : 제1회 노래의날개위에 개최



00. 10. 21 : 성모자현의집 개설



02. 6. 28 : 요셉의원, 서울시장 감사패 받음



03. 6. 3 : 선우경식 원장, 호암상 수상



05. 3. 1 필동재활센터 개설



06. 11. 18: 고창 요셉의집 개설



08. 4. 18: 선우경식 원장 선종



08. 4. 30: 이문주신부 원장으로 부임



08. 6. 12: 선우경식 원장, 국민훈장 동백장 추서받음



09. 3. 27: 신완식 의무원장 부임



11. 3. 15: 음악치료교실 개설



13. 1. 26: 필리핀요셉의원 개원



16. 5. 13: 요셉의원, 대통령 표창 받음



“환자들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어요”

- 대통령 표창을 받고 -

5월 13일 우리 병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고 직원, 봉사자, 환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나누어 보았다.

- ♥ 가난한 이들, 소외받는 이들에게 빛과 희망을 주시는 곳. 이 곳에서 봉사하게 됨을 진심 진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상 받으심, 축하드립니다 (봉사자 에스델)
- ♥ 수상을 축하 드립니다. 지난 10년간의 인연에 감사하며 저도 더욱 열심히 봉사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봉사자 김 소화테레사)
- ♥ 일주일에 한번,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주는 곳. 바로 요셉의원, 축하의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하 축하합니다(봉사자)
- ♥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 대우를 못 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표창 받음을 축하드립니다 (봉사자 이 유스티나)
- ♥ 어머니~ 요셉의원, 대통령 표창 받으셨네요. 선우경식 원장님! 기뻐해주세요. 저도 요셉의원에서 봉사해요. 와와... 신난다. 나도 상. 받. 앓.다 !! 안나도 상 탕슈우 (봉사자 안나)
- ♥ 가장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요셉의원이 세종문화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진솔한 마음으로 이곳을 찾는 분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원)
- ♥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봉사를 해 주시는 것에 무한히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세종문화상을 받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봉사로써 30년을 꾸준히 지켜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변창하시고 가난한 이들이 많은 병이 나아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도 드립니다 (환자)
- ♥ 매번 봉사할때마다 환자들의 건강이 나아지는 것 같아서 매우 뿌듯한 데 이번에 상까지 받았다고 하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을 위해 진료를 해주셔서 영원히 오랫동안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봉사자 안혜연)
- ♥ 서른다섯번째 맞는 세종문화상을 이제서야 받다니... 조금은 섭섭하지만 그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셉의원 모든 후원자, 봉사자와 함께 축하를 나눕니다. (봉사자 김 안드레아)
- ♥ 우리 병원이 사회의 그늘진 곳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29년간을 묵묵히 일 해온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 기쁩니다. 이제까지 숨어서 해 온 일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 그동안의 어려웠던 일들이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일을 계기로 자만하지 말고 더욱 더 노력하고 요셉의원의 이념을 계속 실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봉사자 윤 요셉)

- ♥ 15년째 봉사를 하면서 수상 소식을 접하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선우경식 원장님께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봉사자 변 바오로)



병원 동정

제17회 노래의 날개 위에
명동성당에서 성황리에 개최



요셉의원 후원 음악회인 ‘노래의 날개 위에’ 열일곱 번째 공연이 5월 2일 저녁 7시 반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와 이문주 프란치스코 원장신부를 비롯

해 출연자와 후원인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가톨릭대 교회음악대학원 이상철 신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는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대거 출연해 봄비 내리는 5월의 밤을 주옥같은 클래식 선율로 수놓았다. 연주회의 막을 올린 건 가톨릭 서울대교구 마니피캇 챔버 콰이어로,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성 프란시스의 기도’ 등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다섯 곡을 불렀다. 이어 첼리스트 이강호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가 많은 이의 귀에 익은 ‘타이스의 명상곡’으로 시선을 모은 뒤 ‘폴로네이즈 협주곡 작품 14’로 첼로의 현란한 기교를 선보이며 청중을 사로잡았다. 뒤띠유의 ‘소나티네’와 카르멘 판타지를 연주한 플루티스트 윤혜리 교수(서울대)는 플루트가 얼마나 뛰어난 음악적 기교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감동적인 연주를 선보였다. 피아니스트 주희성 교수(서울대)는 슈베르트의 즉흥곡과 드뷔시의 영상Ⅱ 중 ‘금빛 물고기’를 연주해 환상적인 화음의 절정을 선사했다는 평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교수(서울대)는 ‘안네 소피 무터의 뒤를 이을 바이올린 여제’라는 찬사에 걸맞게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사라사테의 ‘찌고이너바이젠’을 폭발적인 열정과 감성으로 담아내 우레와 같은 갈채를 받았다. 한편 연주회에 앞서 유경춘 주교는 인사말을 통해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원 창립자인 고 선우경식 원장님도 언젠가는 시복시성 되실 것으로 믿는다”, “하늘에서 항상 요셉의원을 후원하고 계신 선우 원장님이 올해에도 이 음악회에 참석하신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춘 주교는 이어 지난 20여년 간 요셉의원 후원회장을 맡아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오덕주 데레사 전 회장에게 염수정 추기경을 대신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 데레사 전 회장은 “요셉의원을 돕는 뜻 깊은 일은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한 자매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가난한 환자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요셉의원 후원회는 앞으로 오 전회장의 뒤를 이어 박찬순 그라시아 회장(전 가톨릭여성연합회 부회장)이 맡아 이끌게 된다.

요셉의원 여섯 번째 영세식 거행
송병구 씨 등 2명 하느님의 자녀로



5월 24일 요셉의원에서 여섯 번째 영세식이 열렸다. 이문주 원장신부 집전으로 봉헌된 이날 영세식에서는 송병구 고스마, 염종철 오토 형제가 새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들은 2015년 10월 14일부터 신혜영 비마 수녀 지도로 6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교리공부를 해왔다. 이문주 원장신부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녀가 되어 달라”고 말하고 “대부는 대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정택 신부 봉사 마쳐
1년 반 동안 심리상담



요셉의원에서 직원과 봉사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봉사를 해온 김정택 대건 안드레아 신부(서강대 법인 이사장)가 봉사를 마쳤다. 2014년 11월 5일부터 1년 반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요셉의원을 찾아 마음이 아픈 이들을 다독여준 김 신부는 5월 25일 이문주 원장신부와 공동으로 집전한 미사에서 “노숙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을 많이 받았다. 내 삶에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그동안 협조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환자 동정

♥ 이 ○(치과환자)씨 편지

- 요셉의원 천사여러분, 잊지 못할거예요

(이 글은 치과치료를 받은 환자의 감사편지로, 이해를 돕기 위해 본인이 쓴 그대로 옮겼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 어머니께서 말씀해주신 말 지키지 못했어요. 대가 없는 남에 덕을 신세를 지지말고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이번에 아무대가도 아무노력도없이 엄청난 덕을 신세를 졌어요. 어머니 가시고 혼자떠돌다 보니 월래 좋지않든 건강이 더 나빠지고 그로인해 일도못하고 일을못하니 숙식이안되고 그러다 보니 이한몸 건강이 엉망이되었어요. 온전한 데가 없지만 그중에도 어떤이유인지 그 튼튼했던 이마저 하나 둘씩 빠져 음식을씹지못하니 국물만 먹고 산지가 벌써 십여년이 지나갔어요. 늘 소원이 틀이라도 할수있으면하는 마음에 여러가지 애를써보았지만 나에게 그런 행운은없었어요. 온전하지못한 건강때문에 일을제대로못하니 돈을 모을수도 없고 돈이없으니 그무엇도 할수가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겨울 어느날 버스정류장에서 믿기지 않는 말을 들었어요. 길을 묻는 그분과 대화중에 그분이 내 이을 보고 이가 그렇게없어 어찌냐고하면서 요셉의원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나는 믿을수 없어 몇번이나 정말이냐고 되물었어요. 그리고 몇칠후 그분이 전해주던 그말이 정말이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요셉의원을 찾아갔어요. 그곳엔 내가모르고 살았던 이세상에 천사분들이 이 못난 저을 친절히 안내해 주었어요.

그로부터 발치와 치료가 시작되어 어언 삼개월 드디어 지난주 꿈에도 생각하지못했던 그렇게 부러워했던 틀이를 설레이는 마음에 떨고있는 나에게 천사분들이 끼워주었어요. 말로 표현할수없는 고마움에 가슴은 뜨거워지고 눈엔 눈물이 고였어요. 오늘도 십여년을 먹고싶어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던 김치와 밥을먹으며 이렇게 행복할수가 없었어요. 요셉의원의 천사 분들을 생각하며 고마움에 열심히 살아 나도 세상에 보답하며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 요셉의원 천사분들이 늘 행복한 날이되길 도와주세요 요셉의원 천사 여러분 잊지못할거예요. 고맙습니다.

후원자 동정

♣ 익명(여) - “천사가 다녀 간 것 같아요”

5월 2일, 요셉의원에서 열일곱 번째로 개최한 ‘노래의 날개 위에’가 막을 올리던 날 아침 9시 50분경 요셉의원 현관에 50대로 보이는 자매 한 분이 들어섰다. 선글라스를 쓰고 빨간색 옷을 입은 그는 은행에서 바로 왔든 듯한 5만원권 묶음 두 다발(1,000만원)을 현관 직원에게 전하며 “TV를 보고 요셉의원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후원금을 갖고 왔습니다. 가족도 모르게 왔으니 익명으로 처리해주세요”라고 했다. 현관 직원이 주소와 성명을 알려달라고 해도 끝내 밝히지 않고 “선글라스를 쓰고 온 것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예요”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후원금을 받은 현관 직원은 “천사가 다녀 간 것 같아요”라며 아름다운 후원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김OO라는 여자 분이 은행을 통해 1,000만원을 보내오는 등 사랑의 릴레이가 이어졌다.

♣ 조형식(남)씨 - “아들 제대 고마워서”

“아들이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한 게 고마워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4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살고 있다는 부자가 함께 요셉의원을 찾아와 후원금을 건네며 한 말이다. 이 미담의 주인공은 아버지 조형식 씨와 아들 조건영 씨다. 이 부자는 아들이 4월 20일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하자 후원금을 준비해 서둘러 요셉의원에 찾아왔다고 했다. 아버지 조씨는 “얼마 전 TV에서 요셉의원에 대한 방송을 보고 언젠가 한번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침 아들의 제대를 기념해 찾아오게 됐다”고 밝히며 500만원을 전달했다.

♣ 수녀(여) - “어머니 반지를 가져왔어요”

3월 9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수녀 한 분이 어머니 뜻이라며 요셉의원에 후원품을 보냈다. 이 수녀는 “어머님(이병희 데레사, 92세)이 연세가 많으신데 갖고 계시던 금반지 1개와 다이아반지 1개를 주시며 좋은 데 쓰라고 하셔서 가지고 왔다”며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끼던 반지를 꺼내놓았다.

♣ 김OO(여) 씨- 도움받은 일 잊지 않고 후원

전남 모 기관 보건실에 근무하는 김OO씨가 후원금과 함께 격려의 글을 보내왔다.

‘서울 관악구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시절 병원비를 낼 수 없는 환자들을 모시고 가면 친절하게 진료해주시고 도움도 주셨던 선우경식 원장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지방에 내려와 사느라 잊고 있었는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동참코자 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정기 후원하겠습니다.’

후원 및 기증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시신 분(4~5월)

강명수, 강민석, 강성민, 강승구, 곽윤자, 구성모, 권은영, 권현희, 김경수, 김광진, 김미영, 김범조, 김성장, 김수자, 김숙경, 김영규, 엄선자, 김영일, 김영자, 김용숙, 김용찬, 김은상, 김재삼, 김재석, 김정섭, 김정임, 김창오, 김학라, 김혜수, 김효민, 김희근, 나승일, 남영식, 류창하, 문용자, 문지영, 박민숙, 박승균, 박은혜, 현동우, 박창량, 변새봄,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 손미정, 송지영, 송택수, 신민주, 신인희, 신재돈, 오길택, 윤미사, 윤영준, 윤완례, 윤지영, 이난희, 이상미, 이상숙, 이솔빈, 이신구, 이애영, 이정남, 이종기, 이한상, 이현희, 이현희, 이화승, 이화자, 임시규, 임향주, 장영진, 정보구, 정순영, 정태임, 정태훈, 정 현, 조원석, 조진선, 천귀일, 최광희, 최영자, 최은주, 최종범, 최 혁, 하경호, 한미선, 한희숙, 황광연, KIM Y.Y, LIM

● 후원금을 새로 보내주시신 단체

광학건설, 리홀딩스, 마니피카츄버라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상영무역, 아이디퍼런스, 큐어 메디

● 주·부식을 보내주시신 분

김경숙 : 족 2상자 / 김수영 : 차 1상자 / 김영주 : 참외 1상자 / 김정호 : 마늘쫘 1상자 / 김평만신부 : 쌀 70kg / 김한섭 : 홍삼드링크 1상자, 박카스 1상자 / 김희옥 수녀 : 떡 1상자 / 나희균 : 멸치 1상자 / 도티병원 : 참외 1상자 / 민들레국수집 : 화과자 / 박근숙 : 떡 1상자 / 박근욱 : 떡 1상자 / 박덕순 : 쌀 20kg / 여약사회장 : 떡 3상자, 바나나 3상자 / 우리물터 : 쌀 200kg, 라면 4상자 / 조해봉 신부 : 썩떡 / 윤은숙 : 참외 1상자 / 익명 : 수박 2통 / 익명 : 우유 2상자 / 전명순 : 빵 / 전영화 : 떡 1상자 / 정명원 : 떡 250개 / 착한과일 : 바나나 4상자 / 코스트코 : 빵 14카트 / 파리바게트 : 빵 6상자 / 푸드뱅크 : 음료수 6상자, 빵 1상자, 갈비산적 7상자, 화과자 7상자 외 / 한강성당 : 쌀 400kg / 함께하는 집 : 빵 29상자 라면 12상자

● 의류·신발을 보내주시신 분

가톨릭사회복지회 : 이불 14채 / 광명 : 옷 5상자 / 권태인 : 옷 3상자 / 김용봉 : 옷 1상자, 신발 4족 / 대방동성당 : 신발 4상자, 옷 2상자 / 목동성당 : 신발 3상자, 옷 1상자 / 민계호 : 옷 1상자 / 박영미 : 옷, 신발 7상자 / 송근교 : 옷15상자, 가방 2 / 오덕주 : 옷 1상자 / 윤인자 : 이불 5채 / 이지수 : 굴 2상자 / 최윤라 : 옷 1상자 / 최혜숙 : 옷, 신발 각 1상자 / 한수연 : 옷 2상자

● 의요기·의약품을 보내주시신 분

권용균 : 한방파스 / 다일천사병원 : 지노메디 / 라파엘클리닉 : 칼로민시럽 / 삼진제약 : 파누스 외 2종 / 서울시여약사회 : 케토톱파스 / 온누리약국복지회 : 파스 외 1종 / 온누리평화약국 : 로페라미드 / 이정오 : 의요기 1점 / 인간의대지 : 디코프 외 2종 / 하나제약 : 노마르크 외 10종

● 집기 및 소모품을 보내주시신 분

김경숙 : 물티슈 2상자 / 박현숙 : 엠프 / 안토니아실버케어 : 샴푸, 린스 1상자 / 영등포우체국장 : 치약 2상자 / 이효선 : 석션컵 100개 / 한범오 : 종이컵 1상자 / 함께하는집 : 도배지 35롤

도와주시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직원 및 봉사자 동정

직원인사

기획실장 조대호 : 퇴사(3월 31일자)
상근봉사 : 김병희

새로 나오신 분

의사 : 박세라(내과)

약사 : 조영애

신학생 현장체험 : 정재엽(국제선교회 5/16~), 황병현(대전교구 5/31~8/29)

의대생 현장체험 : 이가연, 이아연

일반봉사자 : 강주비, 곽영지, 권민지, 김다혜, 김대용, 김미소, 김민순, 김선영, 김성은, 김예진, 김정린, 김진영, 김혜리, 도혜인, 박서현, 박주연, 서정민, 송지혜, 신은혜, 심정민, 오효진, 이동민, 이상호, 이소영, 이슬기, 이영지, 이정윤, 이지은, 이지희, 이희진, 장소진, 장정아, 장정윤, 장지윤, 전재현, 정현지, 최재웅, 한새안, 홍소정, 황선민

우리병원에서 지원한 기관

SQL, 광적성당, 사랑의집, 서울시 여성보호센터, 안성요양병원, 양양성글라라스도원, 영등포노인복지관,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인천이주사목, 제기동프란치스코의집, 제주성글라라스도원, 중국길림성, 쪽방, 케냐의료선교, 코트디브아르, 필리핀요셉의원, 한울타리공동체, 함께하는집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 수	
2016년 4월	1,990명
2016년 5월	1,900명
개원이후 총 진료 인원	610,795명

대통령 표창 수상 감사 인사

저희 요셉의원이 5월 13일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는 오로지 28년 여동안 저희병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봉사와 후원으로 도와주시신 여러분의 성원으로 이루어진 값진 결실이라 여겨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5월 13일
요셉의원

너희가 내 형제들이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

노숙자, 행려자, 알코올의존증환자, 외국인근로자 등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병원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자선 의료기관으로
서울 요셉의원과 필리핀의 요셉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으로 28년을 이어 온
요셉의원을 잊지 마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의원 후원회원 가입방법

1. 자동이체

자동이체는 매번 은행을 가는 번거로움을 덜고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서 아래 계좌번호로 이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시에는 전화 2636-2476으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서울가톨릭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외환은행	111-13-04699-8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2. 지로용지로 후원

2636-247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우편으로 지로용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지로용지 (지로번호 7522950) 예금 주:(북)서울가톨릭 사회복지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필리핀요셉의원 후원계좌

☎ 2636-2476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요셉의원구내

필리핀요셉의원을 도와주실 분은 아래 계좌로 송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리은행	1005-201-940450	(북)서울가톨릭요셉의원

각종 모임 및 서비스 안내

식사나눔

시간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이·미용서비스

시간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현관

목욕서비스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1층 목욕실

단주모임(A.A 모임)

시간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도서관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장소 4층 도서관

휴게실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장소 4층 휴게실

영화포럼

시간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1시 30분~4시

장소 4층 도서관

음악치료 및 인문학강의

시간 목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4층 도서관

법률상담

시간 1, 3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봉사자실

성경공부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